

# 출장보고서

## 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중국권역별·성별연구단 임민경 연구원
2. 출장기간: 2011년 5월 18일 ~ 5월 21일 (3박 4일)
3. 출장지: 중국 하얼빈, 베이징
4. 출장목적:
  - 중국 헤이룽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 인터뷰, 제조업과 식품 가공업의 진출사례 조사, 한국의 대 동북지역 농산물 무역현황 조사(본 조사내용은 6월 15일 제4회 동북아지역협력발전 포럼에서 토론·발표할 논문 작성에 반영될 예정)

## II. 출장일정

| 일자             | 출장지   | 방문 기관 및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011. 5.18 (수) | 인천 출발 | - 인천출발, 하얼빈 도착(OZ339)<br>- 하얼빈 한국상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1. 5.19 (목) | 하얼빈   | - 하얼빈 개발구, 만도 자동차(정서교 총경리 면담)<br>- 하얼빈 개발구, 광성기계(황현진 관리부장 면담)<br>- 하얼빈 개발구, CJ-북대황(김홍기 총경리 면담) |
| 2011. 5.20 (금) | 베이징   | - 하얼빈 출발, 베이징 도착(CA1604)<br>- 농촌경제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면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011. 5.21 (토) | 인천 도착 | - 하얼빈출발, 인천도착(OZ336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Ⅲ. 활동 내용

#### 1. 하얼빈 한국상회

□ 일시/장소: 2011. 5. 18 오후/하얼빈시

□ 면담자: 김진배 사무국장

□ 주요내용: 최근 하얼빈의 노동력 유출 및 기타 소비

- 최근 하얼빈의 물가가 중국 남방지역과 비슷한 정도로 상승한 반면 임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젊은 노동계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.
- 과거부터 하얼빈의 젊은이들은 랴오닝성, 상하이 등 외지로 나가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데, 노동력 유출은 직종에 따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.
- 전문 기술직의 경우(건축설계 분야의 전기, 전선공 등), 이들 중 상당수가 매달 1만 위안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고임금자들이며, 남방에서 채용해 온 경력자도 충분한 상황임.
- 반면 일반 서비스 업종은 구인난이 매우 심각함. 특히 식당 종업원 등 단순 서비스업종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직률도 높게 나타남.
- o 3년 전 식당 종업원의 한 달 임금은 약 400~500위안 이었으나 지금은 약 2배가 증가한 1,300~1,500위안에 달함(하얼빈 내 한국식당 기준). 문제는 이렇게 임금을 올려도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임.
- o 현재 단순 서비스업은 시골에서 갓 상경한 젊은이들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, 종사기간도 평균 3개월 내외에 불과함.
- o 결국 과거 중국의 농촌 젊은이들의 도시 정착을 위한 주 취업 수단이었던 단순 서비스업종은 앞으로 점점 시간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임.
- 하얼빈은 중국 남방의 타 도시에 비해 소득수준은 높지 않은데 오히려 거침없이 소비하는 면모를 보임. 이는 동북지역 특유의 '체면문화'의 영향이 있다고 봄.

- 중국 정부의 대출 억제 방향에도 불구하고, 현재 하얼빈에서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한 대출은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편.
- o 하얼빈 내 최고 부유지역인 '아이젠'에 건설된 호화 아파트의 경우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임. 부동산 돈벌이를 위한 매입이 증가해 최근 4년 간 방값이 2~2.5배 정도 증가했음(평당 4천 위안→약 2만 위안).
- o 참고로 아이젠 아파트는 장쩌민 전 주석의 딸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.

## 2. 하얼빈 개발구 만도(하얼빈) 자동차

- ☐ 일시/장소: 2011. 5. 19 오전/하얼빈 개발구
- ☐ 면담자: 만도(하얼빈) 정서교 총경리
- ☐ 주요내용: 만도(하얼빈) 회사 현황 및 외자기업의 하얼빈 진출환경 평가

### 기업개황

- 만도는 현재 중국에 5개 공장(하얼빈, 쑤저우, 베이징, 톈진, 닝보), 2개 영업부처, 1개 R&D센터(베이징) 및 2곳의 test track(헤이룽장성 헤이허<黑河> 포함)을 가동 중인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임.
- 기본기술은 한국에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함. 단, 로컬 사업 영역에 따라 베이징 R&D센터에서 설계를 수행하며, 각 지역 공장에서는 주로 생산·품질관리를 담당함.
- o 참고로 관리자는 모두 한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만도의 중국 진출은 주로 한국의 대기업(현대, 기아 등) 및 중국의 완성차 회사(체리, SGM, 지리 등)와 동반 진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짐.
- 만도(하얼빈)는 2002년 10월 중국 합비자동차(HFMC)와 합자 투자해 2004년 2월 하얼빈 공장을 설립했음. 2010년 누적 투자액은 1,200만 달러, 매출액은 3,800만 달러를 기록함.

o 합자 당시 자본금은 약 850만 달러로, 만도와 HFMC의 투자비율은 80:20이었음.

※ 참고로 중국 정부는 완성차 외자기업의 경우 독자투자를 인정하지 않음. 오직 합자투자만 허용하는데, 이 이유는 외자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내재화하기 위해서임.

- 초기 동반 진출 목적과는 달리, 현재 만도(하얼빈) 매출액에서 HFMC가 차지하는 비중은 5%에 불과하며, 약 60% 이상이 수출에서 비롯되고 있음. c.f> 미국 GM 30%, 미국 기아 16%, 미국 현대 17% 임.

- 현재 HFMC와의 합자 상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는 수출에 더 주력하고자 함.

o 따라서 인민폐 절상의 경우, 하얼빈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치는 리스크가 클 것으로 예상됨. 그 이유는 이들 중 만도(하얼빈)를 비롯한 대부분이 하얼빈 내 수시장보다는 수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임.

## 하얼빈 진출환경 평가

- 객관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가 진출하기에 하얼빈의 완성차 시장은 열악한 편임. 상하이 등 남방지역이 가장 이상적이며, 동북지역의 경우 하얼빈 보다는 완성차 업체가 비교적 많은 선양(瀋陽)으로 가야한다고 봄.

o 참고로 남방에 위치한 만도(쑤저우)의 매출은 하얼빈의 약 13배에 이름.

- 외자기업이 헤이룽장성 내수시장 진출을 꺼리는 첫 번째 원인은 '물류 인프라'때문임. 육상, 해상 운송 모두 일반 제조업체가 진출하기에 열악한 상황임.

o 가장 물류비가 낮은 해상운송도 하얼빈에서 약 1,000km 떨어진 랴오닝성 다롄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물류비 손실이 크게 발생함.

- 아직 하얼빈의 시장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, 동북지역 공무원의 외자 투자 유치열도 매우 낮다고 봄.

o 특히 헤이룽장성 공무원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일치했는

데, 남방에 비해 유치열이 매우 떨어지고 심지어 이들 공무원 중 투잡족(공무원의 지위를 남용해 중간에 커미션을 받아먹는 일)도 상당수라는 견해가 많았음.

- 과거와 달리 이제 제대로 된 한국기업은 중국의 정부우대정책이 아니라 '시장'을 보고 진출하는 단계로 들어서야 함.
- o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노동력 부족에서도 알 수 있듯이, 더 이상 중국에는 인건비 우대도 없으며 오히려 매년 최소 20%씩 임금을 인상하고 있는 현실임.

### 최근 동북지역의 인력난

- 노동력 수급상황과 관련, 만도(하얼빈) 공장은 기술공 중 약 95%가 헤이룽장성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력난은 심각하지 않았음.
- o 우선 회사의 지명도가 높고 규모 및 임금 레벨이 개발구 내 타 중소회사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임.
- o 반면, 만도(하얼빈)의 바로 옆에 위치한 광성기계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.
- 임금인상은 더 이상 노동력 확보를 위한 만능열쇠가 아니며, 계속되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노무관리가 이루어져야 함.
- o 예를 들어, 만도(하얼빈)의 경우 화장실, 식당, 현장, 사무실 등을 중국직원과 한국직원이 동등하게 사용하도록 개조했으며, 특히 현지직원들과의 접촉 횟수를 증가하는 것이 중국인 노무관리의 핵심임을 강조함.
- o 현지 공장, 사무실, 식당 등을 직접 살펴본 결과 이직률이 낮은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음. 공장의 경우 밝은 조명을 사용해 채광도를 높였고, 공장 한 칸에 간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을 설치해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음. 그 외 사무실과 화장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꾸며서 현지직원이 회사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함.

##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제기된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망의 폐쇄성에 대한 질문

Q> 얼마 전 일본 대지진 후, 중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업체도 부품 조달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. 기존의 일본 완성차 업체망이 워낙 폐쇄적어서 한국이나 중국의 자동차 부품회사가 수주를 따내기 힘들었지만, 이번 지진을 계기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? 이러한 관측이 현실성이 있는가?

o 독일, 일본 자동차 회사는 비교적 폐쇄적이다. 각 회사가 소유한 메이저 부품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아웃소싱을 주지 않는다. '닛산'의 경우 비교적 오픈되어 있으나(프랑스 <르노>와 아웃소싱), 도요타와 혼다는 폐쇄적이라고 본다.

o 외국계 회사의 폐쇄망을 뚫고 진입할 수 있는 힘은 오직 '기술력' 뿐이다. 기술면에서 중국 부품업체보다 한국 업체가 아직은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.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로 일본의 완성차 업체가 기타 자동차 부품 업체에도 문턱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. 그러나 당장에 실현되기는 힘들 것이며 시간이 필요하다.

※ 지금 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2011. 6. 8일, 현대 모비스가 일본 완성차 업체인 미쓰비시로부터 총 2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부품 수주를 따냈음.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가 단일 품목으로 일본에 수주한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임. 따라서 이러한 추세로 볼 때, 필자 역시 폐쇄적인 일본 완성차 업체 진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함(필자부언).

o 2010년 만도는 최초로 독일 BMW에 브레이크 수주 건을 따냈다. 이는 폐쇄적이기로 유명한 독일 자동차 업체망을 뚫은 사례이다. 한국 업체가 중국에 진출한 일본 완성차 회사의 아웃소싱을 따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.

## 3. 하얼빈 개발구 광성기계 유한공사

☐ 일시/장소: 2011. 5. 19 오후/하얼빈 개발구

☐ 면담자: 광성기계 황현진 관리부장

☐ 주요내용: 인력난 현황

- 광성기계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주로 만도(하얼빈)에 납품을 하고 있음. 현재 5명의 한국인 주재원과 170명의 현지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최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, 2011년 5월, 20% 임금 인상했으나 올 6월 다시 인상할 예정임.
- 문제는 임금을 인상해도 끝이 없다는 점임. 단순히 임금인상이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줌.
- 임금인상의 배후에는 크게 △주변 회사의 경쟁적 임금상승과 △파업조장이 있음.
- o 최근 합비 자동차가 공격적으로 인력을 모집하면서 대거 이직이 시작됨.
- o 또한 공장 내 현지 직원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조장하고 있음. 이 같은 파업조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임.
- 구인난이 가장 심각한 분야는 전기공(전기회로 조작업무)으로, 그 이유는 공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임.
- o 현재 경력 10년 이상 전기기술, 용접공의 월평균 임금은 약 5~6천 위안에 달하며 이는 일반 직종의 2배에 해당함.
- 구인난은 3~5년 지속될 것으로 보임.
-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광성기계는 하얼빈 시내의 자동차 관련 기술학교와 협력해 졸업생 취업과 채용을 연계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다고 봄.
- o 시내 학교와 연계해 졸업생을 채용해도 입사 후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,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회사의 고용 안정성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.

#### 4. 하얼빈 개발구 CJ-북대황 주식회사

□ 일시/장소: 2011. 5. 19 오후/하얼빈 개발구

□ 면담자: 김홍기 총경리

□ 주요내용: CJ-북대황 하얼빈 진출 목적 및 현황, 하얼빈 내수환경 평가

### 기업개황

- CJ-북대황은 2008년 CJ가 헤이룽장성의 최대 식품국유기업인 북대황(北大荒)과 합자 진출한 회사로 현재 하얼빈에 공장을 가동 중임.
- 생산 제품은 주로 유럽과 미국으로 100% 수출되고 있음.
- 현재 생산(1인), 품질(1인), 설비(1인), 재무·회계(1인), 총경리(1인) 등 다섯 명의 한국인이 있으며, 이외 단순 기술부문은 모두 현지인으로 채용함.
- CJ-북대황은 대표적인 '자원-기술 결합형' 진출 사례로, 세계 최초로 쌀에서 미강 단백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획득한 CJ와 풍부한 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대황이 합자한 케이스임.
- o 북대황이 보유한 쌀 자원은 약 830만 톤으로 이는 한국의 전체 보유량(500만 톤)의 무려 1.8배에 해당함.

### 하얼빈 진출환경 평가

- CJ-북대황은 헤이룽장성이 지닌 풍부한 자원을 보고 진출한 특수 케이스에 속함. 그러나 한국의 식품 가공업체가 진출하기에 헤이룽장성의 환경은 열악하다고 평가함.
-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운송비 부담을 들 수 있음. 하얼빈에서 다롄까지 육로로 수송하는데만 이틀이 소요되며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비용이 상당함. 이 외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재수급도 힘든 상황임(생산자재는 주로 상하이, 광저우, 선양 등지에서 수급함).
- 최근 건설 중인 고속철도도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함. 물류비 문제야말로 헤이룽장성 정부차원에서 풀어주어야 할 문제이며, 이것이 해결될 때 외자유치를 고려할 수 있음.
- o 현재 개발구 차원에서 물류비 감세, 전기세 인하 등의 특혜를 주고 있음(환급의 방식). 비록 지금 중국정부의 우대정책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헤이룽장성은 특수

한 지역인 만큼 다른 지역보다 확실한 외자유치 우대책을 제시해야 함.

- 비록 헤이룽장성의 내수진출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나, 추세로 볼 때 향후 내수확대의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봄.
- 앞으로 내수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과 영업력이 관건이라고 판단함. 현재 CJ가 보유한 기술도 언젠가는 상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.

## 인력난

- CJ-북대황도 현지 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편임. 50%는 주변의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며 나머지 50%의 우수인력은 다롄이나 선양 혹은 연해지역으로 내려감.
- o 중국 전역에서 발생 중인 인력난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비롯되었다고 봄. 남쪽은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인력이 부족하고, 북쪽은 연해지역으로 빠져서 인력난이 발생함.
- CJ-북대황 공장 내 생산인력과 사무인력의 비율은 7:3임. 약 50~60명의 기술공이 있으나 초급 기술공이 부족한 상황임. 특히 20~40대 젊은 남자 기술공을 구하기 힘들.
- o 수요가 많은 젊은층이 기술공보다는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한데, 그렇다고 서비스 업종의 인력사정이 더 나은 것도 아님. 즉, 지금 중국 젊은이들의 업종 간 이동이 공중에 붕 뜬 상태와 같음. 제자리로 찾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판단함.
-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, CJ-북대황에서는 기업 브랜드 로열티를 높이려고 함. 한국 본사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, 중국 직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춤.

## 기타 서비스업 진출 가능성 및 헤이룽장성 기업과의 합자 진출 여부

- 물류 의존도가 낮은 서비스업의 진출은 비교적 가능성이 있으나, 현지 소비자들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은 편임. 당장의 진출은 기대하기 힘들.
- 식품가공업의 경우 헤이룽장성 내수 수요만 고려해도 승산이 있다고 봄. 또한 헤이룽장성의 식품가공업체들도 외자기업과의 합자를 긍정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

알고 있음.

- 그러나 문제는 합자를 추진하기에 현지 회사들의 수준이 많이 뒤떨어짐. 실제로 합자 추진 과정에서 사업모델,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등 핵심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협력이 호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었음.
- o 일본 모리나가 유업도 하얼빈에 합자 형태로 진출했으나 현재는 기술 지원만 하고 지분을 뺀 상태임. 즉 철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음.
- o 반면 코카콜라의 경우 하얼빈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개발구에 공장을 설립한 상태임.

## 5.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베이징 대표처

- ☐ 일시/장소: 2011. 5. 20 오후/베이징
- ☐ 면담자: 정정길 소장
- ☐ 주요내용: 동북지역과의 농산품 협력 가능성

### 동북 3성의 쌀 특징 및 한국과의 연계성

- 동북 3성은 중국 식량자원의 보고로 쌀, 옥수수의 주산지임. 또한 동북지역의 쌀 (자포니카 종)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품질이 좋은 쌀로 인식됨. c.f> 일반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쌀은 가공용으로 사용.
- o 동북 3성 중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이 중국의 식량 주산지로 일컬어짐.
- 특히 동북 3성의 쌀은 한국인이 먹는 품종에 부합함. 만약 FTA로 인해 향후 중국 쌀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경우, 그 주체는 동북 3성에서 생산되는 쌀일 가능성이 큼.
- 현재 동북 3성의 쌀은 수출지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으나 주로는 중국 내륙에서 소비됨.
- o 최근 중국 남방 지역에서도 동북 3성의 쌀을 먹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동북에서 남방까지의 물류비가 비싼 관계로 비교적 저렴한 동남아 쌀을 수입함.

## 한국의 대 동북 식품가공업 투자 현황 및 방향

- 식품가공업(농산물가공 포함)은 한국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투자하기에 비교적 유망한 산업분야로 거론됨.
- o 그 이유는 식품가공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'원료 확보'때문인데, 이 점에서 동북 3성은 풍부한 원료 공급지에 속하기 때문임.
- 그럼에도 현재 중국 식품가공업에 투자하려는 한국기업은 CJ, 종갓집(김치), 풀무원 등 소수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적으로 매우 적은 편임.
- 그 이유는 우선 식품 가공업 투자가 더 이상 저가의 원료만 확보한다고 해서 가능하지 않기 때문임. 소비시장, 물류 및 노동력 확보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동북 지역의 전반적인 시장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임.
- 또한 대중국 식품가공업 투자는 더 이상 소규모 중소기업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음. 과거와 달리 이제는 원료생산에서 가공, 유통, 수출까지 수직적으로 통합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진출하는 추세임.
- 농산물 무역을 볼 때, 한중 간 신선 농산물 교역은 경쟁력이 없으며(유통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비용부담이 큼), '가공기술'을 매개로 한 협력이 용이하다고 판단함.
- o 즉, 중국서 원료 곡물을 수입한 후 이를 한국에서 가공해 가공 농산품의 형태로 수출하는 것임. 예>땅콩을 수입한 후 땅콩잼으로 가공해 수출
- 최근 중국의 농산품 소비시장도 차별화되고 있음.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품질 수입 농산품의 소비의사도 있고 구매력도 높은 편임.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고품질 농산물을 수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함.
- 향후 한중 농업협력에서 동북 3성은 중요한 연구 대상임. 단, 기술협력 뿐 아니라 공동의 품질 안전 시스템을 합의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함. /끝/